

주재근베이커리 강준석 & 고재석 씨의 멘토

따뜻한 카리스마로 빛나는 리더 이호영

어떤 일을 시작할 때 훗날까지 기억에 남을 만한 선배나 스승을 만난다는 것은 큰 행운이다. 주재근베이커리의 안과 밖을 각각 책임지고 있는 고재석 씨와 강준석 씨는 제과 기술은 물론 조직생활에 필요한 많은 점을 부산 씨트론과자점 이호영 선배에게서 배웠다. 제과 기술에 막 발을 내딛었던 초보자 시절에 만나 멘토가 되어주었던 이호영 선배에 대한 그들의 추억을 들여다본다. 글_김영주 기자·사진_전문식, 주현진

고재석 씨와 강준석 씨는 주재근베이커리에서 없어서 안 될 핵심 인물들이다. 고재석 씨는 제품을 책임지는 공장장으로 고객들에게 주재근베이커리의 빵맛을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강준석 씨는 세가지 브랜드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는 주재근베이커리의 점포 개설 책임자로 모든 점포는 그의 손을 거쳐 탄생하고 있다. 그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주재근베이커리의 안과 밖을 든든하게 책임지고 있다. 한 조직 안에서 서로 함께 화합하는 그들에게는 중요한 공통점이 있다. 그들이 처음 제과업계의 발을 내딛었던 초창기 시절, 고된 시간을 함께 웃고 울던 같은 사람의 선배가 있다. 비록 서로 다른 시기였지만 고재석 씨에게는 엄하면서도 따뜻하게 품어줬던 선배가, 강준석 씨에게는 제과 기술의 성장을 가져다 준 스승이, 바로 부산 씨트론과자점의 이호영 대표다.

첫사랑처럼 아련한 추억

이호영 선배를 먼저 만난 사람은 고재석 씨다. 1973년 고재석 씨가 15살이라는 어린 나이로 나폴레옹과자점에 들어가 오븐 담당으로 일하고 있을 때 이호영 선배가 새로운 부책임자로 부임했다. 제과업계에 들어온지 얼마 안된 초보였던 고재석 씨는 이호영 선배를 처음 보고 의구심부터 먼저 들었다.

“이호영 선배가 부책임자로 들어왔는데 그 전에 아세아제과점에서 3년 동안 책임자로 일을 했다고 하더군요. 다른 곳에서 책임자로 일하던 사람이 왜 그 자리를 버리고 다시 부책임자로 왔는지 어린 제 머리로는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처음 본 이호영 선배는 저한테는 신기한 사람이었죠.”

하루 이틀 시간이 흐를수록 고재석 씨는 이호영 선배가 기술을 배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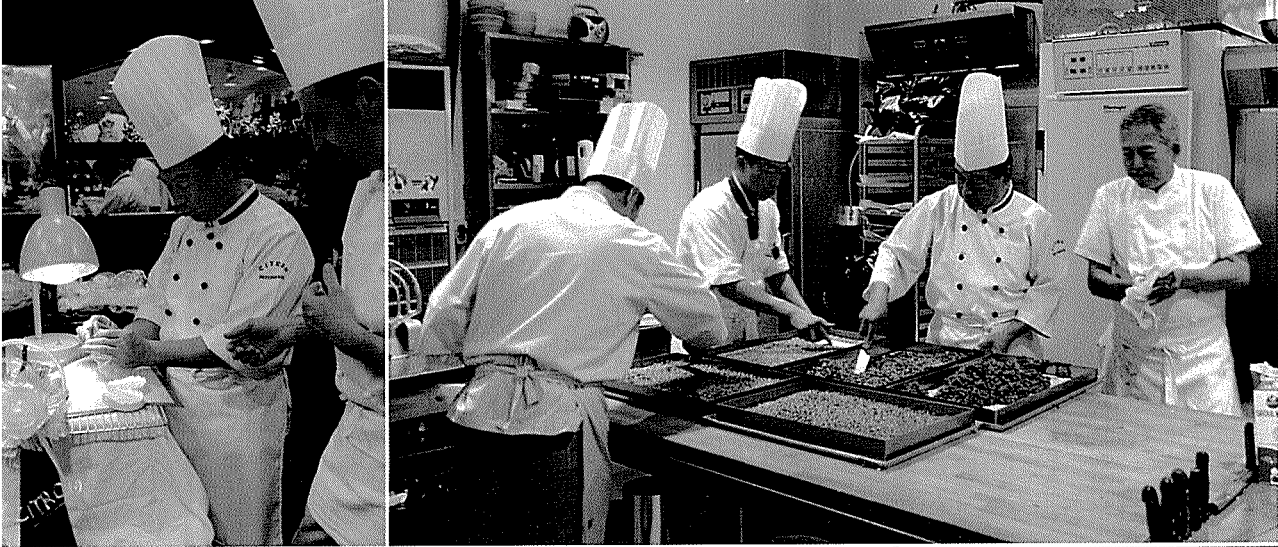
김주환빵
한두바케
40% / 500원
(140원)
신저공

KMB
대한민국제과기능장

KMB

PATISSIER
JULIAEUN

JULIAEUN



기 위해서는 자리 욕심까지 내버릴 수 있는 사람이란 걸 알았다. 기술에 대한 명확한 소신이 있기에 가능한 일임을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면서 이호영 선배는 그의 마음 깊이 각인이 됐다. 함께 일할 때 정말 엄하고 무서운 선배였지만 기술에 대한 진지한 열정이 있고 후배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이호영 선배는 그에겐 존경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다.

1989년 청량리에 있던 볼란서제과점에서 이호영 선배를 처음 만난 강준석 씨는 선배보다는 고마운 스승으로 그를 간직하고 있다. 중간 중간 잠시 떨어져 있던 시기도 있었지만 8년 동안 이호영 선배와 함께 일하면서 강준석 씨는 제과 기술의 기초부터 제대로 닦았다.

“저한테 이호영 선배는 스승 같은 사람이었죠. 이호영 선배가 너무 기술이 뛰어나서 선배의 기술을 배우고 겨우 따라가는데 8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나름 한다고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더 열심히 배웠으면 좋았을 걸 하는 후회가 많이 남아요. 이호영 선배는 그만큼 저에게는 기술적인 성장을 가져다 준 스승이나 다름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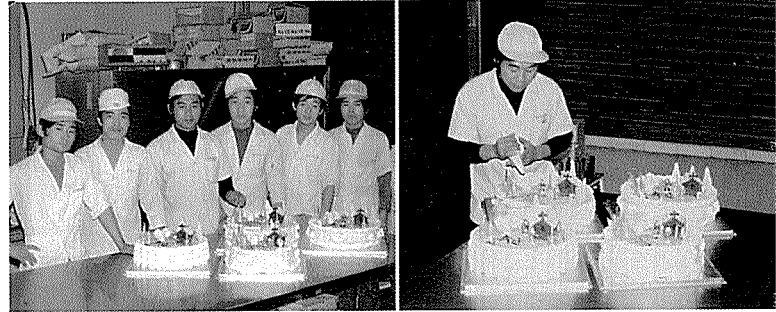
벌써 몇 십 년이 지난 일이지만 그때의 추억들은 마치 첫사랑이 떠오르듯 아련하게 그들의 기억 속에 이따금씩 펼쳐지곤 한다.

하나를 가르쳐도 푹 부러지게

고재석 씨와 강준석 씨는 이호영 선배가 유난히 후배들에게 인기가 좋았다고 전한다. 인기의 비결은 바로 하나부터 열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일을 가르쳐주는 이호영 선배의 스타일 때문. 강준석 씨는 이호영 선배에게 잼 만드는 것을 배웠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잼 하나를 만들어도 그냥 만드는 법이 없어요. 잼을 맛있게 만들려면 물의 양을 많이 해서 오랜 시간 푹 졸려야 하거든요. 보통은 귀찮아서 대충 끓여도 될 법한데 이호영 선배는 왜 오랜 시간을 끓여야 하는지 일일이 설명해 주면서 정확하게 그 방법을 고집하셨죠. 기술을 가르쳐 주실 때 항상 그렇게 체계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니까 어깨 너머로 기술을 배우는 것이 전부였던 그 시절에 그 자체가 소중한 기회였어요. 선배님은 후배들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를 깨달아 제대로 된 기술을 익히길 바라며 귀찮은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제품이든 잘 만들고 손재주도 뛰어났던 이호영 선배는 늘 제품 개발하는데 많은 연구를 했고 개발한 제품을 후배들에게 가르치는 것에도 열성이었다. 그래서 그는 후배들에게 올바른 가르침을 주는



선배로 정평이 났다. 그는 하나를 만들어도 자신이 먼저 정확한 방법을 지킴으로써 자연스럽게 후배들도 제대로 된 방법을 익힐 수 있게 만들었다. 그렇게 기술에 있어서 ‘흠 잡을 틈 하나 없이 정확한 사람’이 바로 이호영 선배였다.

당근과 채찍으로 이끈 후배 사랑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후배들에게 기술을 전했던 이호영 선배였지만 일을 할 때는 호랑이보다 더 무섭게 변했다. 일을 잘못했을 때는 정말 눈물이 절로 날 정도로 호되게 야단을 치곤했다. 그러나 호되게 야단을 쳤던 만큼 후배를 따뜻하게 품어줄 줄 아는 선배였다. 이호영 선배와 4~5년을 함께 일했던 고재석 씨는 특유의 위트와 장난기로 공장 분위기를 언제나 화기에애하게 주도 했던 그를 좋아했다.

“이호영 선배는 후배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을 정말 좋아하셨는데 일할 때는 그 철저함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작은 실수라도 하면 정말 매서운 꾸증이 날아오곤 했죠. 하지만 그렇게 야단을 치시곤 나중에 따로 불러내 항상 다독겨려 주셨습니다. 험악해진 분위기를 언제 그랬는지도 모르게 재미난 유머로 풀어주시고 특유의 장난으로 후배들에게 친근하게 다가오셨죠. 그런 선배였기에 그렇게 야단을 맞았어도 불만 있는 후배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후배들은 채찍과 당근을 적절히 사용하며 자신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 주었던 이호영 선배를 늘 좋아했다. 그것이 선배가 그들에게 보여 주었던 사랑이라는 것을 모두 알았기 때문에 어느 한사람 불만을 갖는 이가 없었다고.

고재석 씨보다 오랜 시간 함께 한 강준석 씨는 이호영 선배에게 더욱 각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기술의 성장을 이끌었던 스승이자 따뜻하게 인생 상담을 해주던 형 같은 모습을 두루 보면서 아직도 늘 고마움을 잊지 못한다. 익산 원제과에서 함께 일하던 시절, 제품 판매

량이 너무 많아서 공장은 늘 바쁘게 돌아갔다고. 크리스마스 때 빵만 1만개 이상 만들 정도로 일이 많아서 고생스러웠던 그때 강준석 씨의 든든한 버팀목은 바로 이호영 선배였다.

“원제과에서 함께 근무할 때 제가 몸이 많이 아팠어요. 이호영 선배는 아파서 병원에 자주 다니는 저를 안 좋게 보시기는커녕 친동생처럼 따뜻하게 보살펴 주셨죠. 선배는 집으로 불러 따뜻한 밥도 주시고 친형 못지않게 언제나 저를 걱정해주셨습니다. 또 어린 제가 돈을 함부로 쓸까봐 돈쓰는 법이며 관리하는 법까지 자세하게 가르쳐주시곤 했어요. 그냥 일터에서만 알고 지내는 선배를 넘어서 제 생활까지 관심을 가지고 많이 도와주셨죠. 아무리 후배라고 해도 그렇게 관심을 갖고 이끌어 주기가 쉽지 않은데 저에게 보여주셨던 관심 덕분에 제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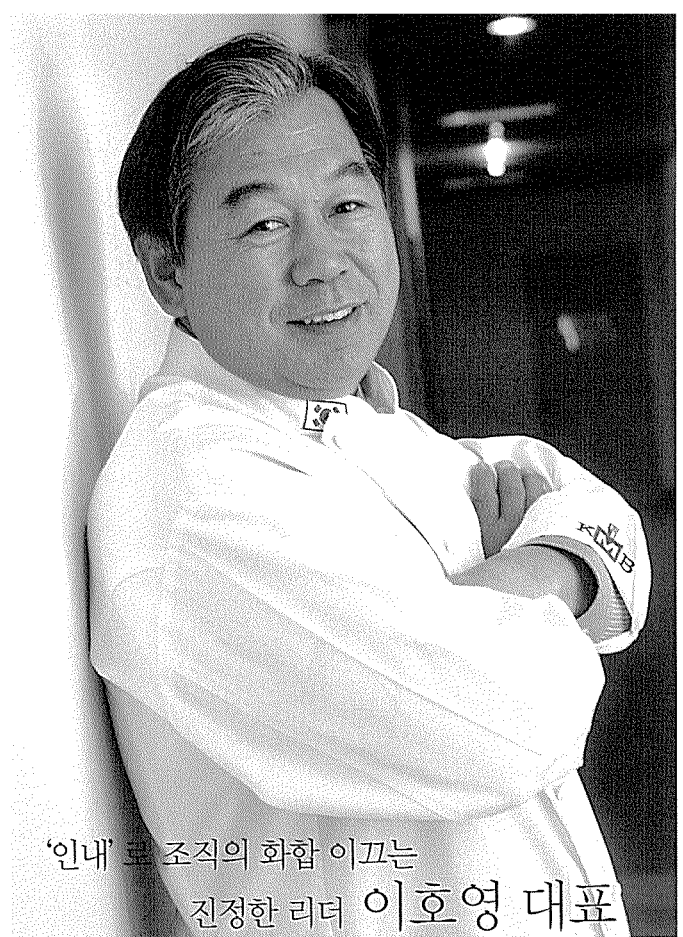
따뜻한 카리스마로 빛나는 리더십

이호영 선배를 기억하는 또 하나의 모습은 리더십이 뛰어난 사람이라는 점이다. 중간자의 역할을 할 때나 책임자의 역할을 할 때나 어떤 모임을 이끌어가는 수장의 역할을 할 때나 그는 늘 한결같이 따뜻한 카리스마로 조직을 잘 이끌어가는 사람이었다. 고재석 씨는 그런 이호영 선배의 리더십이 언제나 부러웠고 닮고 싶었다.

“나폴레옹과자점에 있을 때 부책임자로서 중간자 역할을 아주 잘 하셨어요. 책임자를 보좌하는 것은 물론 후배들을 챙기는 일도 소홀히 하지 않으셨죠. 설사 후배들 때문에 책임자에게 야단을 맞은 후에도 후배들의 군기를 잡는다가나 화풀이를 하기는커녕 후배들에게 말할 필요가 있을 때만 알아듣게 조목조목 말씀해 주셨습니다. 후배들이 불만이 있으면 그것을 잘 들어주고 책임자와 조율하면서 조직이 하나로 잘 화합하기 위해 중간에서 어려운 순간마다 지혜롭게 행동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리더십 덕분에 항상 팀웍이 좋았죠.”

특유의 리더십은 그가 책임자가 됐을 때도 잘 발휘됐다. 강준석 씨는 책임자로서 업주와 공장 식구들을 잘 이끌어 주던 이호영 선배를 기억하고 있다. 이호영 선배가 책임자를 맡을 때는 업주와 공장 식구들 사이에 갈등이 생겨난 적이 없었다고. 각자의 불만을 들어도 경솔하게 서로의 나쁜 감정을 옮기기보다 양쪽의 이야기를 잘 듣고 해결 방법을 찾아 제시하며 서로 화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언제나 따뜻한 카리스마로 조직을 이끌어간 그의 리더십은 그를 업주에게 인정받고 후배들에게 존경 받게 해주었다. 조직 생활에서 ‘화합’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호영 선배의 리더십은 고재석씨나 강준석 씨 모두에게 조직 생활의 큰 교훈으로 남았다.

이제는 이호영 씨, 고재석 씨, 강준석 씨 모두 각자의 길에 서있다. 수십 년이 지나면서 옛날처럼 자주 연락하거나 만나지는 못하지만 언제나 마음 한 구석에 좋은 선배로, 착실하고 조용했던 후배로 서로를 간직하고 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같은 길을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로서 마음 한구석으로 든든하게 서로를 응원하고 있다.



‘인내’로 조직의 화합 이끄는
진정한 리더 이호영 대표

부산 씨트론과자점의 이호영 대표는 인자한 미소와 부드러운 이미지로 제과인들 사이에서 인망 높기로 유명하다. 한국제과기술경영연구협회 회장으로, 대한제과협회 부산지회 부회장으로 다방면에서 활동해 온 이호영 대표는 특유의 리더십으로 모임을 이끌어가는 제과인으로 알려져 있다.

이호영 대표는 16살의 어린 나이에 제과일을 시작했다. 동네 제과점이었던 대전 독일제과에서 처음 제과일을 배우기 시작한 그는 제과인으로서 더 큰 꿈을 안고 몇 년 뒤 서울로 근무지를 옮겼다. 서울에 있는 진설당, 부산제과를 거쳐서 아세아제과에서 3년 동안 공장 책임자로 일을 했지만 스스로 부족하다 느껴 나폴레옹과자점의 부책임자로 들어갔다. 제대로 체계적으로 기술을 배우지 못했다는 생각이 그의 마음 한구석을 불편하게 했고 기술에 대한 욕심은 공장 책임자라는 직책보다는 기술을 발전시키는 길을 선택하게 했다. 그는 나폴레옹과자점에서 근무하면서 수준 높은 기술을 배우고 커다란 성장을 이루게 됐다. 나폴레옹과자점에서 2년 동안의 근무를 마친 이호영 대표는 로타리제과에서 책임자로 일한 뒤 프린스제과를 운영하게 됐다. 하지만 기술과 경영이 그의 뜻만큼 따라 오지 못했던 탓인지 오너셰프로서의 자리를 곧 내놓아야만 했다. 뼈아픈 한번의 실패를 맞본 그는 다시 11년 동안 공장 책임자로서 더욱 자신을 단련시켜 부산에서 자신의 모든 것이 담긴 씨트론과자점을 오픈하게 된다.

이호영 대표는 씨트론과자점을 운영하면서 훌륭한 기술과 성공적인 경영을 적절하게 결합하기 위해 서울대학교 보건대학 식품외식산업 최고경영자과정과 혜전대학 AIB 과정을 수료하는 등 경영에 대한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외국 기술자와 정식 계약을 맺고 제품을 업그레이드 하는 등 점포의 기술 개발에도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의 노력 덕분에 씨트론과자점은 16년 동안 한결같이 부산 지역 유명 베이커리로 입지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이호영 대표는 기술을 배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인내’라고 생각한다. 기술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어렵게 익혀야만 완전히 자신의 것이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기술뿐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그는 인내의 미덕을 발휘한다. 다양한 모임을 이끌어오면서 그는 회원들 간의 화합을 위해 리더로서 인내심 있게 노력했다. 당장 눈앞에 일어나는 일에 동요되고 이익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모임 전체가 발전할 수 있는 비전을 가지고 인내하며 사람들을 이끌어왔다. 인내를 즐길 줄 아는 그였기 때문에 언제나 그가 있는 곳에는 화합과 발전이 함께할 수 있었다.